

2018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누림

메시지 10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이기는 이들과 함께 먹을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계 3:7-22

- I.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 A.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각 서신의 시작(2:1, 8, 12, 18, 3:1, 7, 14)에서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일곱배로 강화되시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각 서신의 마지막(2:7, 11, 17, 29, 3:6, 13, 22)에서 일곱 배로 강화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께서 모든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보편적인 말씀이 된다.
 - B.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그 영, 곧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특정한 지방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그 영은 우주적인 몸을 향해 말씀하신다.
 - C. 이것은 1 장 4 절에서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 영이 주님이시며 주님이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교회의 하락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 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D.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 있는 일곱 서신들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 시작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특정한 지방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나중에 모든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그 영의 말씀이 된다.
 - E. 그 영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입으로 돌이킨다. 그 영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주입이다 — 비교 고후 3:16-18.
 - 1.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합당한 재료로 만들며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건축하시는 보배롭고 달콤하며 사랑스러운 전달, 곧 주입 아래 있게 된다.
 - 2. 불 못으로 가야 할 모든 것은 일곱 등불로 불태워지며(계 4:5), 지금 우리는 일곱 눈 아래 있으면서(계 5:6),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심의 주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F. 교회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 영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쉽지만 그들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긴밀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있다.
 - G.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하며, 듣는 사람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 1.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경륜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 욥 33:14-16, 사 50:4-5, 출 21:6.
 - 2.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 렘 6:10, 행 7:51.
 - 3.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씻겨지고 그 영으로 기름발라져야 한다 — 레 14:14, 17, 28.
 - 4.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귀는 반드시 구속하는 피로 씻겨져야 한다 — 출 29:20, 레 8:23-24.

5.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고 할례받고 씻겨지고 기름부음을 받은 귀가 필요하다.
- H. 그 영의 말씀은 교회사에 있는 일곱 종류의 교회들, 즉 초기의 교회(에베소), 고난받는 교회(서머나), 세상적인 교회(버가모), 변절한 교회(두아디라), 개혁 교회(사데),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라오디게아)에 관한 것이다.
1. 마지막에 나오는 네 종류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2.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주님은 오직 그 교회만을 원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택을 취해야 한다.
 3. 라오디게아는 변질된 빌라델비아이며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 — 계 3:14-17.
 - a.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에서도 불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명칭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도 그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이 교회는 자신의 이전의 영광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의 상태는 잊고 있다.
 - b. 만일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비교 계 3:7-22, 사 57:15, 66:1-2.
- II.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축을 위한 다윗의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 열쇠를 어깨에 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난다 — 사 22:22, 계 3:7.
- A. 회복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열고 닫을 권위를 가진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주님은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는 회복된 교회에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 계 3:8, 비교 시 133 편.
- B.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가진 기둥들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 계 2:17, 3:12.
1.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조성성분이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불가능을 처리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 롬 8:2, 계 3:7-13, 비교 창 28:12-19, 요 1:51.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통제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그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들이 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풍성들을 열어주시고 닫으시는 것을 모두 체험했다 — 엠 4:30, 살전 5:17, 요일 1:7, 9.
 - a. 보물인 그분의 풍성들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과와의 접촉 안에,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와의 접촉을 유지하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 고후 2:10, 롬 8:6, 10:12-13, 골 3:16, 마 5:3, 8.
 - b. 보물인 그분의 풍성들을 누리려면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는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두 '셉나'들이다. 셉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되고 대치되어야 한다 — 사 22:15-19, 마 16:24-25.
- III.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이들과 함께 먹고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 계 3:20-21.
- A.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계 3:20.
1.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2.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
 3.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음과 같다. 즉 (1) 비참하다. 왜냐하면 공허한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몹시 빈약하기 때문이다. (2) 가련하다. 왜냐하면 벌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3) 가난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제 면에서 가난하기 때문이다 (4) 눈멀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일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 별거벗고 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곧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살지도 않기 때문이다 — 계 3:15-17, 비교 시 45:1, 9-14.

4.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이어야 한다.
 5.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다만 음식 한 항목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곧 잔치의 풍성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생산품을 먹는 예표의 성취를 함축한다 — 수 5:10-12.
 6.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와 잔치로 누림을 통해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 계 2:7, 17, 3:20.
- B.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계 3:21.
1. 주님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은 것은 이기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될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과 오는 천년 왕국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것일 것이다 — 눅 19:11-27, 마 25:21, 23.
 2.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해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 계 2:26-27, 3:21, 22:5, 비교 사 14:12-14.
 3.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로 이끌리셨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참된 사람께서 보좌 위에 계신다(겔 1:26).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주 예수님은 보좌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개척자이자 선주자(히 6:20, 2:6-9)로서 보좌로 향한 길을 내셨다. 그분은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앞장을 서셨다(히 2:10-12).
 5.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보좌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던져 버리시고 사탄이 포로로 잡은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그들을 그분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이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운명은 왕들이 되는 것이지만 왕권을 위해 우리가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 롬 5:17, 21, 비교 겔 1:22, 26, 마 8:9.